

“문화특별시 지정 · 전통미술관 건립”

김승수 전주시장, 민주·전북도 정책협회사 건의 “국가균형발전 대안으로 대통령 공약 실행이 필수”

전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문문화특별시 지정을 건의했다.

또한, 덕진권역 유지업밸리 조성을 위한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과 법조삼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문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법조삼현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한 지원을 건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 박주민·박광온·설훈·김혜영·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송하진 도지사과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전문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등 국비지원이 요구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당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거듭요

청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문화특별시와 같은 대통령 공약이 실행되는게 필수”라며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법원·검찰 청사가 이제 1년 뒤면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곳에 국립 전통미술관과 국립 법조삼현 기념관 등을 만들어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시장은 전주동물원에 멸종위기종 번식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

치하고, 전주철도벤처단지에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시는 전주의 문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주시가 강점인 문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도시의 성장에 국가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법조삼현 기념관 건립 등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66만 전주 시민들 체육으로 ‘한마음’

시, 시민체육대회 개최

전주시는 66만 전주 시민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8 전주 시민체육대회’를 지난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전주 시민체육대회는 전주시 35개 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 시민 모두가 화합과 상호 소통을 통해 하나가 돼 건강한 행복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주시 35개 동 주민

과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시민 4,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줄다리기와 단체줄넘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동 대항 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루호와 전자다트, 고리걸기 등도 진행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 축제의 장이 연출됐다.

전주시 체육산업과 관계자는 2018 시민체육대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그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제23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2일 전주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양원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의장을 비롯, 시·도의원, 전주시 7개 농업인 단체(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H본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및 시상식에 이어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는 농업인 한마당 잔치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 먹거리인 ‘전주푸드’ 홍보·직판코너 △전주시농업인대학 발효과정 졸업생들의 ‘발효식품’ 전시 등이 운영돼 농업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이 연출됐다. /송효철 기자



제23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2일 전주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 성료

전주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회장 박성래)는 지난 2일 휴비스 전주공장 운동장에서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전주시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독일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전주! 중소기업 기살리기 한마당 축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축제는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이 참여한 장기자랑에서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퓨전국악 공연과 인기 가수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성래 (사)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 회장은 이날 “이번 축제는 경기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노사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가짐으로 행사를 준비한 만큼, 전주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금강유역 수자원보호 잘했다

금강수계관리 성과 ‘우수’ 표창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역신)가 노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소중한 수자원을 잘 보호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1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워크숍에서 ‘2017사업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마다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집행률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으며, 시는 하수도 관리 등 환경기초시설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해 34억1100만

원의 금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노후하수도 정비 △농촌지역 우·오수분리 △도심 하수관거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해 1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금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오·우수 분리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맑은물사업본부는 이외에도 빗물자원화 최우수기관과 새만금수질 개선 우수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 북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들어 직원들의 노력으로 값진 성과를 잇따라 거두고 있다. /송효철 기자

허위환자 순회 유치 요양급여 가로채

덕진경찰, 기업형 컨설팅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150명 검거 도내 폐원 병원 인수한 뒤 가로챈 금액 236억원 상당에 달해

전주덕진경찰서는 비의료인이 재단을 설립, 의사를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환자를 순회 유치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가로챈 대표와 의사 등 15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재단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환자 B씨 등 147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20여개 병원에 대해 계속 수

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라북도 일원에서 경영이 어려워 폐원된 병원을 인수한 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에서 요양급여비 236억원 상당을 챙겼다.

특히, 병원 개원 시에는 신용불량

되었거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허위환자 133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에 순회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5조원으로 추정(보험연구원)될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보험사기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1577-1295

국번없이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